1960년대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

- 잡지『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와 사춘기

이선옥**

차례

1. 머리말
2. '생활표준'과 사춘기 소녀의 제도화-『여학생』
3. 불안한 감정관리 - 센티멘탈리즘과 소녀성
4. 미성숙한 신체관리 - 사춘기, 취약한 신체, 수치심
5. 강철신체와 비체의 구성- 소년성과 소녀성의 구성
6. 마무리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잡지『여학생』에 나타난 소녀의 개념을 분석하고, 박정희정부가 주도한 근대화프로젝트의 국민만들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여학생』잡지는 1965년 창간된 이후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된 대표적인 여학생잡지이다. 1차 작업으로 살펴본 1960년대의 특징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전단계로서 사춘기 소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센티멘탈한 감정과잉과 불완전한 신체로 소녀의 개념이 구성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과잉감정과 사춘기의 취약한 신체 관리를 통해 구성해내는 이상적 소녀상은 수줍은 제복의 여학생이다. 피흘리는 신체, 출산하는 몸이라는 육체성을 지우고, 감정 역시도 제도화된 육체에 깃들 수 있는 수치심을 드러내는 발그레한 볼로 이미지화된다. 이러한 소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927847)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녀를 규율하는 방식이 생활표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담론들이다. 사춘기라는 과학담론은 이러한 소녀의 특징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한 감정과 신체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 소녀로 제도화된다. 특히 일상의 과학화, 신체의 과학적 설명, 남녀의 특성에 대한 의학적 설명, 합리적 에티켓, 행동윤리 등으로 과학적 담론을 통해 규율이 신체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흔히 청소년은 남성/여성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로 젠더 정치학의 작동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박정희프로젝트의 국민만들기에서 '수줍은 제복의 소녀'는 강철신체로 상징되는 남성노동력을 구성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남성국민주체가 혐오하고 버려야 하는 감정과잉, 오염된 신체 등 인간적 취약성을 투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새롭게 탄생한 소녀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핵심어 : 박정희근대화프로젝트, 1960년대, 잡지, 『여학생』, 과학주의, 사춘기, 젠더

1. 머리말

'비체'로 번역하는 abjection(아브젝시옹)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폐기되는 비천한 몸, 더럽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인간 몸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몸이다. 즉 찢어진 몸, 피흘리는 몸, 체액, 피, 침 등이 몸의 경계를 뚫고 몸의 불안정성, 취약성을 드러내는 몸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성의 몸, 더럽고 혐오스러운 몸이 어떻게 비체로 구성되고 버려지고, 또 한편으로는 신성한 몸이 되는가[1]에 대한 젠더 재구성을 과학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소녀와 모성으로 나누어 여성성을 재구성하게 되는 196, 70년대 잡지들을 중심으로 여성 신체와 감정이

1)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역, 동문선, 116-117쪽.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주의를 이 시기 여성성 구성의 핵심 키워드로 삼은 이유는 박정희정부의 근대화프로젝트에서 진행한 국민만들기의 마술적 조력자로 과학이 아닌 과학주의가 동원되기 때문이다.

196, 70년대는 산업주의국가로 도약하려는 시점에서 과학주의가 국가프로젝트의 핵심 이념으로 등장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지성사를 대표하는 잡지 『사상계』를 분석해 본 결과에서도 과학주의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시대정신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2] 민족주의와 과학주의가 결합하여 기술민족주의가 박정희 정부의 근대화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핵심이념이 되기까지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 과학주의라는 이념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특히 『사상계』의 발간인 장준하는 1962년의 권두언 「과학하는 정부, 과학하는 국민」(1962.7)에서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라고 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사회-국가일수록 더 부강한 것 같다"라고 선언하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과학적 방법으로 이끌면 국민도 자연스럽게 과학하는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주의는 새마을운동의 생산성담론과 군사주의 이념과 함께 박정희 시대를 이끌어 간 핵심이념이라고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여성잡지에서 과학주의가 어떻게 일상의 규율이 되고 신체를 구성하는 담론이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학주의는 과학과는 달리 과학을 절대적 진리로 생각하는 신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과학이 민족을 구원하고 모든 이들에게 선한 영향

2)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사상계』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참조. 이 글에서는 이 시기의 이념적 특징을 과학주의로 추출하고 분석하였다. 새마을운동의 생산성담론, 군사주의와 더불어 과학주의는 박정희정부의 산업화드라이브의 주요이념으로 등장했으며, 산업화정책을 받아들이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음을 분석하였다. 특히 기술민족주의와 기술결정론은 과학기술이 모두에게 선이 된다는 이념으로 과학기술의 정치적 권력화를 지우는 데 유효하게 작동하는 원리가 되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동방미디어 『사상계』 영인본에서 주제어 검색으로 본 결과에서도 민주(200건), 민족(187건), 과학(142건) 관련 기사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력을 가져올 것이라는 소박한 기술결정론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시기 지식인들의 과학에 대한 신념은 '과학적'이라는 이름으로 독점적 개발이 정치 권력화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지식인들이 박정희식 근대화프로젝트에 동의해간 과정도 이러한 이념적 동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 시기에 여성은 순수한 소녀, 교복을 입은 순결한 존재로 재구성된다.[3] 양공주가 산업역군으로 양산되던 시기[4]이며, 산업화로 농촌의 소녀들이 여공으로 가기 시작한 시기[5]였던 196, 70년대 '여학생'은 순결하고 순수한 존재로서 모든 비체와 분리된 여성 주체로서 제도화된다. 생리혈을 감추고, 출산, 임신을 할 수 있는 피 흘리는 몸이라는 사실이 지워진 몸에는 그 대신에 이 몸에 대한 수치심을 드러내는 감정이 자리잡는다. 부끄러움, 수줍음을 표현하는 표상으로서의 여성의 몸과 감정을 과학담론, 의학담론으로 설명하고 신체화하는 시기가 이 시기라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196, 70년대의 과학주의가 어떻게 소녀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러한 소녀성이 일상의 규율로 전파되는가를 살펴보고, 그러한 담

3) Elaine H. Kim· Chungmoo Choi, *Dangerous Women*, London: Routledge, 1998, pp. 26-27.

4) 김형윤, 「우리 누이의 때묻은 담요 위에 선 환락의 도시」, 『뿌리깊은나무』, 1980.2. 60년대는 기지촌의 황금시대. 피엑스경제의 중심. 전후에 들어선 기지촌은 경기도 파주군 주내면 연풍1리 용주골. '알씨'로 불렀던 미국들의 종합휴양시설이 1956년 들어선 후 대표적인 기지촌이 되었다. 그 외에 용산구 후암동과 이태원, 평택군 송탄읍 신장리. 그 밖에 대구, 대전, 왜관, 군산, 목포, 진해 등 크고 작은 기지촌이 생김; 김현장(『이 불쌍한 무등산 청년의 죽임과 죽음』 저자), 「이윽고 '관광기생'이 되고야 만 이 처녀들」(『뿌리깊은나무』, 1979.5)에서는 외화획득의 산업역군이라 격려하기도 했던 70년대 관광기생의 실태를 다루고 있다. 73년 9월 자유중국과 국교 단절 이후 일본 관광객의 한국행이 증가되면서 대원각, 삼청각 등의 요정을 중심으로 전국에 다양한 형태의 관광요정이 만들어졌고 70년대 중반 약 일만 명 정도의 기생이 영업하고 있던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5) 소녀여공에 대한 이미지는 불량소녀이미지와 연결되어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진다. 허윤,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대중서사연구』 20-2, 대중서사학회, 2014, 127쪽.

론 하에서 가치가 재배열되는 과정을 분석한다.[6] 대상 텍스트는 1965년 창간된 잡지 『여학생』을 대상으로 삼았으며, 1차 작업으로 1965년에서 1970년까지 잡지의 특집기사와 여학생문학상 현상문예 당선작[7]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일상이나 가정 규범, 남성성/여성성의 요소들이 재배치되는 과정을 분석해 보면 인간의 가치에 대한 구분과 위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주의 이념이 현실화되고 개인의 삶으로 재해석되는 과정은 가족, 결혼, 성 등 일상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삶으로 틈입되고 재기입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개인의 삶으로 재해석된 과학주의가 실제 여성성/남성성의 속성으로 재배치된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위계화하고 계열화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이 잡지는 일상의 과학화, 신체의 과학적 설명, 합리적 에티켓 등으로 과학적 담론을 신체화한다. 과학주의가 육체 관리와 감정 관리 등에 적용될 때 '생활표준화'라는 규율화된 담론이 생산되고 전파된다. 지배담론이 육체로 재해석되고 위치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학담론이 신체화되는 과정에서 이성, 감정의 재배치가 이루어지는데 특히 『여학생』의 소녀이미지, 사춘기에 대한 담론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96, 70년대 청소년담론에 대한 연구는 1968년 '국민교육헌장'의 근면한 국민만들기, 미래의 국민으로서의 청소년 이미지에 대한 연구들이 나와 있다. 나윤경(2008), 권인숙(2008) 등의 연구가 그러한데, 이 연구들에서도 지적하는 것처럼 주로 소년의 경우 예비 국민으로서 국민만들기와

6)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성잡지로는 『여원』, 『여상』, 『여학생』 등을 들 수 있다. 『여원』(1955.10-1970.4)은 학원사에서 발간하다가 1956년 6월부터 여원사를 설립 발간한 대표적인 교양잡지이며, 신태양사에서 발간한 『여상』(1962.11-1967.11, 68년 2월호까지 발간되었다는 기록도 있음)은 2,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좀더 상업적인 잡지이다. 『여학생』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양, 오락 잡지로 오랫동안 소녀들의 생활지침서의 역할을 한 잡지이다.

7) 현상문예당선작은 1985년에 여학생사에서 출간한 『여학생문학상소설당선작품집』을 대상으로 삼았다.

관련되어 있다면 소녀의 경우는 예비 현모양처로서 구성되며, 보편주체인 남성성의 대타적 존재로서 가치의 위계를 만드는 젠더기획에 동원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 때문에 남성주체만들기에서 버려지는 육체성이나 감정 등의 가치가 어떻게 여성성으로 구성되는가를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과학담론이 만들어내는 여성 신체에 대한 가치구성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학생』에 대한 연구는 최근 몇 편의 연구가 제출되고 있는데, 정미지의 석사논문(2011)과 김양선(2015), 허윤(2014), 김윤경(2013) 등의 논문이 있다. 정미지는 1960년대 잡지에 나타난 문학소녀의 표상을 분석하여 '소녀적' 감수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김양선은 잡지의 문학란인 '여학생문단'과 '현상문예' 작품분석을 통해 소녀 독자의 작가되기가 붐을 이루었으며, 문학교양이 소녀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징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허윤의 불량소녀와 이상적 소녀상에 대한 분석, 김윤경의 여학생들의 글쓰기와 독서경험에 대한 분석 등이 『여학생』연구와 소녀상 연구의 특이성을 밝히고 있다.

2. '생활표준'과 사춘기 소녀의 제도화-『여학생』

『여학생』 잡지는 1965년 12월 창간된 후 1990년 재정난으로 폐간할 때까지(현재 국립도서관에는 1988년 12월호(24권 12호)까지만 남아 있다.) 지속적으로 발간된 명실상부 한국현대사에서 여학생-소녀를 독자로 한 대표적인 잡지이다.[8] 창간호 권두언에 따르면 『여학생』은 "정신을 차

8) (정의) 1965년에 창간되었던 월간 여학생잡지. (내용) 1965년 11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격동에서 창간하였으며, 당시의 발행 겸 편집인은 박기세(朴基世)이다. 창간 당시에는 A5판으로 발행되었으나 1981년 1월호부터 B5판으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이 잡지는 여학생의 교양·생활·오락·진로 등 학교생활 이외의 벗이 될 것을 목표로 하였는데 "자라나는 세대에 아름다움을 심어주고, 아름다운 생활감각에 세련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계도하는 잡지"를 표방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목표와

릴 수 없게 혼탁하고 서로 펴 볼 수 없도록 궁색한 생활 속에서도 교양과 인격과 학문을 겸비한 좋은 인간성을 배양하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남과 협력하여 항상 겸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진실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격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창간되었다.

> 월간지 『여학생』을 창간함에 있어 이 교양지가 회의에 빠진 여학생들에게 꿈이 되고 청량제가 될 수 있기를 빌며 또한 여러분들이 여성으로서의 교양을 쌓고 실력을 길러 사회의 기초가 되고 훌륭한 한국의 여성들이 되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서 창간사를 대신합니다.[9]

발행인 박기세의 창간사에서 보이듯이 이 잡지는 교양지를 표방하고 있으며, 회의에 빠진 여학생들에게 꿈과 청량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창간 2주년 권두언에서는 이러한 교양지로서의 목표가 좀더 구체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녀상이 부재하는 한국의 십대들의 내면세계를 위한 교양적 계몽지가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교양지이되 지식의 보급이냐, 진학을 위한 어드바이서가 되느냐" 아니면 "여성들의 가난한 내면세계를 위한 카운슬링의 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교양지가 되되 우리 여성들의 내면세계를 위한 카운슬링 역이 되자는데 역점을 두게 된 것"[10]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양지이면서 카운슬러가 되겠다는 방향성은 이 잡지의 목차 구성을 보아도 잘 드러난다. 특집, 연재소설, 수필 등 유명 문인들과 대학 교수들이 주로 집필하고 있는 부분에

는 달리 패션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다소 여성전문지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하였다. 꿈과 지혜를 길러주는 명작 및 위인들의 발자취를 소개하며, 10대의 여성생활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하였다. 창간 당시에는 활판인쇄로 화보의 비중이 적었지만, 1981년 1월호부터는 B5판에 오프셋인쇄로 화려하면서도 350면 내외의 풍부한 내용을 담기도 하였다. 1990년 11월 재정난으로 폐간되었다.(참고문헌: 『한국잡지총람』, 한국잡지협회, 1988.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DB.)

9) 박기세, 「창간사」, 『여학생』, 1965.12.

10) 박기세, 「창간 2주년을 맞으며」, 『여학생』, 1967.12

서 교양을 전달하고 있다면, 우리학교 자랑이나 르포, 특별수기, 어드바이스루움 등은 실제 여학생들의 생활에 대한 카운슬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현상문예, 여학생문단을 통해 독자들과 교감하고, 만화나 영화 등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코너도 마련하고 있다.

이 잡지의 두드러지는 점은 압도적으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점이다. 순정소설, 역사소설, 명랑소설, 추리소설 등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제공하고 있으며, 시, 수필, 수기까지 상당한 부분이 문학에 할애되고 있다. 또한 여학생문단과 현상문예 등 독자참여 문학란까지 포함하면 이 잡지가 추구하는 교양이 문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학 비중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미지는 '문학소녀'를 이상적인 모델로 제시하고 이 잡지가 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불량소녀'와 대비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불량소녀 및 여학생을 계도하기 위해 기획된 표상이 문학소녀였다는 것이다. 여학생들을 '예비 현모양처'로 길러내기 위해 만들어진 여학생이미지는 독서를 하는 수줍은 소녀이다.[11] 1960년대 소녀들의 교양이 독서로 구성되었고, 그러한 독서하는 소녀이미지가 이 잡지의 이상적 이미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교양담론 역시도 많은 문인들이 필자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잡지에서 좀더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독서교양이 왜 이렇게 강조되었는가이다. 독서교양은 한 시대의 지배 이념의 전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조선시대 사대부의 독서교양은 사대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동시에 상민들과의 차별성을 형성하는 위계지표로 작동하는 것이었다. 근대 이후 독서교양은 시민적 교양으로 형성되었고, 근대적 규율을 내면화하는 한 방법으로 시민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시민성의 구성이 근대 독서교양의 보편적 특질임을 배경지식으로 하면서도 이 시기의 독서교양은 좀더 특화된 측면을 살펴볼 수 있다. 그것은 독서교양과 생활표준화의 관계이다. 과학담론은 국민의 구성에서

11)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1, 70쪽.

전면적인 생활표준화를 전파하는 마술적 조력자로 작동한다. 이러한 생활표준화를 내면화된 규율로 만들고 신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독서교양이다. 생활을 관리하고 신체를 규율할 수 있는 다양한 과학적, 합리적 지식들을 습득하고 그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독서교양의 역할에 해당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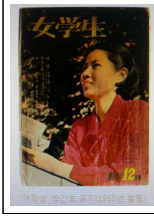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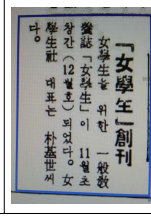
이 잡지가 기획한 특집의 교양내용은 주로 청소년의 생활 표준화와 관리를 위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생활의 표준화는 과학주의 담론이 여성의 삶으로 신체화되는 한 방식이다. 여성주의 과학자들은 1900-1940년대 이후 미국의 여성계몽이 과학주의 담론과 관련하여 식단, 건강, 가계설비, 안락함, 교육 등의 범주로 '생활표준'을 구성하고 전파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남부끄럽지 않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 자신이 속한 계층의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부엌을 배열하고 같은 잡지와 신문과 책을 읽으려는 생활표준화는 산업화시대의 기술산업사회의 생산모델을 일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다.[12] 우리나라에서 중산층 가정의 생활표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잡지는 1960년대 『여원』이라고 볼 수 있다. 가계부를 쓰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주부라는 개념이 이 잡지를 통해 정착하게 된다. 『여원』이 2, 30대 여성들을 독자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여학생』은 10대 소녀들의 라이프스타일을 표준화하고 소녀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규율담론들을 제공

12) 우리나라의 경우 식민지 시기 우생학이나 생활개량 정책들이 이러한 생활표준화에 노력을 하지만 실제 중산층이 형성되고 여성의 일에 대한 전면적인 사회적 표준화가 시작되는 것은 6,70년대 박정희정부의 산업화드라이브와 함께 진행된다. 대표적인 여성 교양잡지 『여원』과 『여상』의 인기나 대중화 역시 이러한 '생활표준'의 전파와 관련이 있다. 1960년 1월 『여원』에서 가계부가 처음 부록으로 제공되었던 사례나 생활수기 공모전 등 생활개선운동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루쓰 코완,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김성희 외 공역, 도서출판신정, 1997, 175-177쪽. 주부담론에 관해서는 이선옥, 「여류현상문예와 주부담론의 균열」,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원연구모임, 『여원연구』, 국학자료원, 2008; 최경희, 「1960-7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젠더양상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참조.

하고 있다.

<여학생 표지 이미지-생활의 표준화를 보여주는 이미지들>

<table>
<tr>
<td>
</td>
<td>1969.6
“생활의 리듬화, 환경의 관리화, 사고의 과학화를 돕는 十代誌!”
꽃과 과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활짝 웃는 소녀의 이미지컷 하단에 제시된 이 문구는 이 잡지의 특징을 보여주는 선전 문구로 이 잡지가 생활의 리듬을 만들고 환경을 관리하며,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밝히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고 관리한다는 개념, 즉 일상을 표준화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여학생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td>
</tr>
</table>

<table>
<tr>
<td>1965년
12월창간호-독서하는 소녀</td>
<td>1966년1월-사춘기특집</td>
<td>1966년3월
가사실습장면을 활용한 미원 광고-예비주부 이미지</td>
<td>1966년 12월
인형과 소녀의 이미지</td>
<td>동아일보1965년11월4일
창간광고</td>
</tr>
<tr>
<td>
</td>
<td>
</td>
<td></td>
<td>
</td>
<td>
</td>
</tr>
</table>

표지이미지를 통해서도 이 잡지가 어떠한 여학생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는데, 특집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면(1965년-70년까지 6년 간 특집의 주제) 밝고 건강한 예비주부로서의 소녀상이 제시되고 이러한 바람직한 소녀가 되기 위해 어떻게 생활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규율담론이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집의 주제를 분류해 보면 첫째, 이상적인 소녀상의 재구성 (한국의 소녀상, 소녀상 재발견, 자기발견, 이

상적인 여성 등이 논의됨) 둘째, 사춘기 특성의 과학적 설명(이성교제, 호르몬 변화, 신체 변화, 건강, 심리 등이 논의됨) 셋째, 일상과 감정교육(계절 감상, 여름방학, 성탄절, 생활계획, 취미 등이 논의됨) 넷째, 바람직한 인생관과 롤모델 제시(주니어 인생론, 이상적 인물 등이 논의됨) 다섯째, 진학과 학업(대학입시, 신학기 생활, 직업선택 등이 논의됨)[13] 등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상적인 여성성과 그것에 대한 교육방법, 사춘기를 둘러싼 의료 과학 지식의 전파, 미래의 인재로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발달 모델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잡지에서는 특히 소녀의 특성으로 제시되는 감상적 여성성과 사춘기로 정의되는 질풍노도의 시기에 대한 몸담론이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소녀의 정신과 신체에 대한 새로운 개념구성을 위해서 여성으로 성장하는 전단계로서 사춘기 소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몸에 대한 의학적 지식과 정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통해 소녀의 개념을 만들어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3. 불안한 감정관리 - 센티멘탈리즘과 소녀성

『여학생』은 창간호부터 '소녀상'을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한 송이 꽃', '봄처녀'로 표현되는 '평범하면서도 서민적이고 그러면서도 고결한 것을 늘 동경하는 소녀, 안으로 찬 생명감이 조용히 밖으로 흘러 넘치는 소녀'(이하윤, 「내가 바라는 소녀상」, 1965년 12월 창간호)는 이 잡지가 지향하는 소녀상이라 생각할 수 있다.

「잔 다아크는 있어도 소녀상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소녀상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김진만의 글은 창간호의 핵심 주장을 담고 있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3) 특집 주제 분류는 한국여성문학학회 연구팀에서 함께 논의한 내용으로 허윤의 분류를 참고로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 소녀상. 너무나 아름다워서 죽음으로써만 승화될 수 있는 서구식 소녀상. 우리에게는 소녀상이 없다. 전란과 그로인한 민속의 어지러움으로 목가적인 소녀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포도를 따는 프랑스 농촌의 처녀, 건장한 독일 처녀에게서 연상되는 목가적이며 낭만적인 이미지가 한국소녀에게는 없다. 순결, 수치, 정조와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단 소녀에게만 요구되는 이상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부녀자에게 과해져 온 덕목이었다. -중략- 우리는 지금 도의의 공동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소녀상을 찾되 종래와 같이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덕성을 강조하려 든다면, 끝내 우리의 소녀상은 발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소녀상을 찾기 위해서 종래식으로 정신적 가치를 강조하는 풍습을 버리고, 새로운 정신적 가치를 찾아서,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소녀상을 형성해야 할 판이다."(75쪽)

이 글에서는 전쟁과 전후의 혼란으로 목가적인 소녀상은 산산이 조각났고, 잔다르크, 유관순 같은 국가 위기에 헌신적인 소녀상 역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그리하여 순결, 수치, 정조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를 새롭게 해석하고 그 기초 위에서 새로운 소녀상을 형성해야 할 때라는 진단을 보여준다. 이 글은 『여학생』의 핵심주제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글이다. 이러한 소녀만들기가 이 잡지의 중심주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여학생』에 대한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소녀적 감수성' 특히 센티멘탈리즘이다. 정미지와 김양선의 분석처럼 센티멘탈리즘은 소녀들의 문학적 특성으로 설명되지만 또한 사춘기 소녀들의 미성숙함의 표지로 설명된다. 정미지는 '예비 현모양처'로 호명된 소녀들은 순결 규범과 교양으로서의 독서로 계몽되는 대상[14]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독서교양이

14) 김형석의 「인간의 지적인 조화의 조형을 위해-교양에 대해」(『여학생』, 1965.12), 신지식의 「독서와 소녀」(여학생, 1965.12) 등을 예로 들어 독서는 "아름다운 감성, 아름다운 생활"을 키워가는 교양으로 제시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정미지, 앞의 글,

센티멘탈리즘과 연관된다는 것인데, 문제는 센티멘탈리즘이 어떻게 소녀성의 핵심요소로 형성되었는지 그 내적 논리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흔히 감상성, 과잉된 감정 즉 규율되지 않은 감정의 분출을 지적할 때 '센티하다', '센티멘탈 과잉이다'라고 표현한다. 여성작가의 작품들을 비판하는 근거로 사용될 때도 센티멘탈리즘은 소녀성, 미숙한 여성성을 비판하는 기준이 된다. 『여학생』의 현상문예를 평가하는 기준이 센티멘탈을 벗어난 성숙한 문학성이라면 『여원』의 여류현상문예 역시 미숙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센티멘탈 과잉 즉 소녀성이다.[15] 센티멘탈리즘은 소녀성의 특징이며 미숙한 여성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센티멘탈한 감정적 특징을 사춘기의 발달과정으로 설명하는 의사의 글은 소녀성의 특징이 신체의 발달과 함께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특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여성으로서의 십대의 위치」(1968.2)를 설명한 최신해(청량리뇌병원장/수필가)의 설명을 예로 들어보자.

> 11세를 전후하여 급속한 신체적 변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차이가 뚜렷해진다. 15-6세가 되면 신체적 변화보다는 정신적 변화가 더 뚜렷해진다. 이 나이 또래 소년들을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향하는 시기라고 친다면, 같은 아니 또래의 소녀에게는 여성으로서의 완숙을 향하는 시기라 할 수 있겠다.(108쪽)-중략- 중학교 1학년 또래의 남자아이 같으면 차츰 지식욕이 왕성해지고 호기심이 많아진다. 특히 분석적으로 이론적인 것 다시 말하자면 과학적인 면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중략-타인에 대한 비판력이나 자기반성력도 제법 늘어나서 자기나름의 도덕률로 사회적, 윤리적인 원칙으로 이 사회의 선악에 대한 비평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나이의 소녀들은 좀 다르다. 물론 원기는 발달해지고 지식욕도 강해지고 호기심도 강해지지만, 소년과 다른 점은 과학적인 흥미보다는, 음악이나 색체에 대한 감

58쪽.

15) 이선옥, 앞의 글 참고. 여류현상문예작품에 대한 심사위원평가에서 센티멘탈 과잉이라는 비판을 자주 볼 수 있다.

각적인 호기심이 더 강해진다. 옷이나 장식품이나 인형이나 또는 자그마한 장난감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한다. 도덕의식이나 자아의식은 소년보다는 더 예민해진다. 일반적으로 센티멘탈한 경향이 뚜렷해지며, 자기 몸에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혼자만의 걱정에 잠기기를 좋아하며, 자기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많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쉽다.(109쪽) 이 나이 또래의 소녀에게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급격한 성격의 변화라 할 수 있겠다. 감정자체의 불안정성이 심한 동시에 지금까지 활동적이고, 명랑하던 아가씨가 무엇인지 모르게 생각에 잠기기를 좋아하고 지금까지 외부로 쏠리던 정신적 에너지는 내성적으로 방향을 돌변해 버린다."(110쪽)

좀 긴 인용이지만 이 시기 소녀성과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과학적 설명으로 일반적인 설명이어서 그대로 인용해보았다. 소년이 인간으로 성장한다면 소녀는 여성으로 성장한다는 이론은 프로이드식 초자아 개념에 기대고 있다. 따라서 성숙한 도덕적 자아로 성장하지 못하고 여성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사춘기는 과도기의 지연 즉 감정의 불안정성과 감정과잉을 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생리와 신체적 변화와 연결되면서 정서적 불안의 특성으로 연결된다.

이 외에도 여러 글에서 이러한 센티멘탈리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양병택(경희대 교수)의 「여학생과 가정」(1966.2)에서는 여학생이 가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한 가정의 생활보조자이며 설계자"이며 '주부의 유일한 협조자'이며 '제2의 주부'(70쪽)라고 강조하면서 여학생의 특성을 센치함으로 설명한다. "여학생 시절은 감정이 지성보다 월등히 앞서는 시절이다. 그리고 걸핏하면 감상에 젖어 센치하게 되기 쉬운 시절이다." "여학생은 사춘기의 시절이므로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나 감시의 눈을 받기 마련이다. 특히 처녀시절에 입은 육체적 및 정신적 상처도 일생을 두고 가슴에 못을 박아, 불행의 길로 이끌어 가기 쉽다."(71쪽)고 경계하고 있다. 조연현의 「문학적으로 본 사춘기의 감정」(1966.1)에서는 "사춘기 소녀의 정신적 기초"를 자아찾기, 이성 동경 등으로 설명하면서

예민한 감수성과 감상적인 정서로 아무 것도 아닌 일에도 슬퍼하고 대수롭지도 않은 일에도 자살을 생각하는 정신활동을 특징으로 설명한다. 성인적이기보다는 소녀적인 특성으로 이러한 불안한 감정은 교양을 통해 관리되고 규율되어야 하는 대상이 된다. 센티멘탈리즘 자체는 긍정적인 순수한 감정이라고 보는 견해도 등장한다. 정창범(문학평론가)의 「센티멘탈을 비판한다」(1969.9)는 소녀는 센티멘탈리스트이고 센티멘탈리즘이란 "인생의 가치를 정서적으로 판단하는 태도", "이 세상에는 추잡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아름답고 맑고 깨끗하고 착한 것만 존재한다는 생각"(47쪽)이기 때문에 "부정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부패가 들끓는 세상에서 센티멘탈리스트가 필요하다." "맑은 눈, 깨끗한 마음을 가진 센티멘탈리스가 있어야 한다."(47쪽)고 말한다. 세상을 정화시키는 존재로 소녀를 위치시키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를 하지만 소녀들의 조로한 경향, 혹은 조숙한 경향 모두 센티멘탈을 과잉으로 만든다고 경계하고 있다. 결국 센티멘탈리즘은 소녀적 감수성이지만 과잉된 감정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다.

여학생문학상 작품집을 보면 초기에는 가족의 비극이나 향토성 짙은 작품들이 당선작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보이고 1972년 이후에는 '자매부락돕기운동'같은 계몽성, 생활개선과 건강한 성장을 주제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당선자들의 당선소감은 소녀들의 감수성을 엿볼 수 있는데, 1회 소설 당선작 「악수의 의미」를 쓴 박진숙(대구신명여고3년)의 소감이나 5회 당선작 「서울댁」을 쓴 민해선(마산여고 2년)의 소감 등이 눈에 띈다.

> 제복을 벗어던진 내 <자유>를 생각하곤 했다. 차암 어려웠다. 그러나 하늘 드높은 오늘을 쪼오금 자신이 생겨진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하겠다. 노천 대합실. 오색 벤치 위에 오두마니 앉으면 광장엔 항시 바람이 일었다. 소설을 생각하지 않는 날은 한 번도 없었고 또 생각을 했다. 내 아버지 내 엄마 내 오빠 내 꼬마들의 숨결을…… 초조 속에 또 까닭 모를 불안 속에서 여유

> 며 다사로움을 그리는 내 표정은 곧잘 어중간한 것이었는지도 몰랐다.(박진숙, 12쪽)

>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만치 참으로 우울한 나날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이 햇볕 따사로운 오후까지 연속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육안으론 볼 수 없는 병균-권태란 놈에게 물어보고 싶은 충동을 열심히 하이얀 노트장에 풀어 놓고 있었다.(민해선, 82쪽)

까닭 모를 불안, 권태, 우울 등 소녀들의 감수성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다. 문학소녀라는 표상이 지니는 센티멘탈리즘을 소녀들의 글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를 다시 계몽의 대상으로 삼는 담론적 순환성을 만드는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생산과 소비가 완벽한 순환성을 구성하며 소녀성이 제도화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잡지가 『여학생』인 것이다.

4. 미성숙한 신체관리 - 사춘기, 취약한 신체, 수치심

소녀성의 감정적 특징이 센티멘탈리즘이라면 소녀들의 불안과 감정과잉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 몸에 대한 이론이 사춘기에 대한 과학담론 특히 의학 담론들이다.

1966년 1월 특집은 '사춘기'이다. 10대를 규정하는 다양한 용어 중에서 '사춘기'는 의학담론이 만들어낸 10대의 신체적 변화 특히 호르몬상의 변화를 설명하는 용어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조혼으로 아동기에서 곧바로 성인이 되지만 근대 이후 교육기간의 연장과 결혼의 지연으로 10대의 성욕이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등장했다. 이러한 불온한 성욕이 사춘기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이다. 의학박사 김사달의 「의학적으로 본 사춘기의 생리」(1966.1)에서는 사춘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의학적

으로 보는 사춘기란 여자에 있어서는 십삼~십칠세, 남자는 십사~십구세 전후의 연령층의 소녀, 소년을 가리켜 사춘기의 소녀 또는 소년"(68쪽)이라고 규정하며, "일련의 정신의 발육이 아직 미분화 상태인데 반하여 몸의 발달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이 사춘기의 특징(69쪽)"이라는 것이다. 몸과 정신의 발육이 불균형한 상태가 사춘기인데 몸은 거의 성인에 가깝지만 정신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성숙이 사춘기의 과제가 된다. 따라서 "처녀성을 함부로 빼앗기거나 또한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은데서 비극의 싹(72쪽)"이 트게 된다.

> 연애라는 것을 구태어 정의한다면 <성욕을 기초로 한 애정>인 것입니다. 성욕이라는 것은 사춘기와 더불어 싹이 트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춘기와 함께 연애감정이 싹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분화된 감정형태와 사고형식이 곁들기 때문에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비정상적인 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춘기의 성욕은 아직 미숙한 것이며 완전치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중략 -프로이드는 <성욕처럼 전향되어 승화되기 쉬운 욕망은 없다.>고 했습니다. 승화-서블리메이션이란 것은 성욕 등의 욕망의 형태가 바뀌어져서 그것이 문화적인 정신활동의 차원으로 전향되었을 때에 그것을 이른바 승화라고 일컫는 것입니다.-중략-사춘기 여학생들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모든 유혹과 잡념을 오직 서블리메이션함으로써 여성으로서의 우아하고 청순한 지성을 더욱 북돋아 앞으로 덕성과 미가 겸비한 훌륭한 여자가 될 것을 충심으로 빕니다.(72쪽)

미분화된 감정형태와 사고형식이 사춘기 소녀들의 연애이기 때문에 아직은 성욕을 승화시켜 훌륭한 여자로 성장해야 한다는 내용이 이 글의 골자이다. 그런데 『여학생』 잡지의 과학담론들의 특징은 육체성이 사라지고 몸과 감정에 대한 관리와 규율만 두드러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시기의 여성잡지 『여원』의 경우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에 대한 담론이 직설적이고 다양한 이론적 경합이 벌어지는 담론의 장으로

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이 잡지도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급속히 보수화되지만 생리혈과 처녀막에 대한 논쟁이나 결혼의 정조문제 청소년의 성교육 문제 등도 솔직하게 다루고 있다. 찢겨진 몸이나 피흘리는 몸의 이미지가 금기되는 육체성이 휘발된 몸은 아닌 것이다.[16] 그러나 『여학생』은 순결, 부끄러움, 순수함에 갇힌 이미지로 구성되고 과학담론 역시도 이러한 계몽을 하기 위한 도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영균(이대 영문과 교수)의 「윤리적으로 본 사춘기의 미래상」(1966.1)도 마찬가지의 논조이다. '사춘기는 어떤 사람이고 겪어야 할 홍역'이고, '사춘기는 미운 오리새끼이다.' 그런데 자살을 하거나 하는 등의 행위는 "그들이 모든 것을 지나치게 크게, 다시 말해서 과장해서 느끼는 것과 아직 마음이 미처 다 자라지 못해서 모든 일을 자기중심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런 때 자기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젊은이의 특성이라고 하더라도 느끼는 마음, 즉 감수성은 자기가 노력해서 해를 따라서 돌아가는 해바라기처럼 이로운 곳을 향해 뻗칠 수 있는 것이다."(83쪽)라고 조언한다. 감수성의 관리가 사춘기를 극복하는 관건이라는 내용이다.

박기원(소설가)의 「바람직한 소녀입상」(1969.12)에 등장하는 소녀처럼 소녀는 "어머니가 낳아주신 천성 그대로 솜털이 가시지 않은 천진무구한 청결의 덩어리", "곤색제복에 흰 칼라! 그 색깔 같이 소녀의 상이란 깨끗하고 단순하고 단일색"(66쪽)의 이미지로 구성된다. 또한 처녀의 수줍음과 부끄러움[17]은 그러한 순수함에서 나오는 감정이다.

---

16) 『여원』 1962년 4월 <특집 사춘기의 고민과 성>은 특히 이러한 차이를 잘 보여준다. 이옥경의 「사춘기의 신체적 특징」 사춘기에 들어서면 신체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위생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녀막의 신화나 사춘기 위생에 대한 솔직한 설명을 담고 있다. 남녀 생식기의 성장에서 초경을 사춘기의 첫 번 표식으로 설명하고 처녀막 설명도 자세하게 하고 있다.(자궁질 입구에 붙은 얇은 막인데 그 한가운데 구멍이 뚫어져 있음, 처녀막이 두껍고 질기면 초야에 증조가 보이고 처녀막이 엷고 신축성이 있고 질 입구가 크면 초야에 아무런 증세가 없다.) 사춘기의 위생에 대해서는 편식하지 않고 영양 바란스가 맞는 음식 섭취, 충분한 수면, 옥외 운동 필요, 청결. 월경 중 맹렬한 운동, 목욕탕이나 해수욕 등은 삼가야 하며 월경대를 자주 갈라는 조언을 한다.

<육체성이 사라진 제복의 소녀 이미지>

1967년3월-졸업식의 여학생이미지	1968년7월 캠퍼스의 메아리-교가 순례	1969년3월-남여학생들의 에티켓	1970년 3월 특집-제복의 소녀 이미지	여학교 교복을 시리즈로 소개하는 코너
				

의학담론이 공포심을 통한 계몽의 도구로 사용되는 예는 1968년 2월 <특집 십대의 의학>이 대표적이다. 강영선(서울대교수/이학박사)의 「생리적으로 본 십대의 과정」은 흥미로운 선부유전이라는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선부유전(先父遺傳)이라는 말의 유전 특징을 소개하면서 앞서 성관계를 한 남자의 유전적 특징이 남아 다음 아이에게 유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옛날 미국 조그만 도시에 소녀가 길을 잃고 외딴 숲 속의 집에서 묵게 되었는데 이때 흑인 남자와 하룻밤을 자게 되었다. 몇 년이 흘러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부모 모두 백인인데 흑인 아이가 태어난 일이 있었다. 말의 선부유전이 인간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십대의 학생들이 어른의 세계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으로 성적인 문제까지 문란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나로서는 정조관념을 강조하는 때문이 아니라 과학적인 면에서도 이와 같은 조류는 막아야겠다고 본다.”(105-106쪽)고 마무리 하면서 과학적 지식임을 강조한다. 여성의 월경수와 성교 등은 신체의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상징한다. 오염의 대상은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배설물과 관련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월경수이다. 배설물과 그것의 등가물

17) 나영균 「현대소녀들의 미적가치론」(1967.3), 장왕록 「소녀가 가장 소녀다울 때」(1967.3) 등의 글 참조.

들(부패 · 감염 · 질병 · 시체 등)은 동일성의 외부로부터 온 위험을 표상한다. 즉 비자아(비체)로부터 위협당하는 자아, 외부 환경으로부터 위협받는 사회, 죽음으로부터 위협받는 내부로부터 온 위험을 표상한다.[18] 월경수와 정액으로 인해 여성신체는 오염의 상징물로 여겨진다. 이러한 오염으로부터의 위험을 막는 것이 사춘기 소녀의 주요한 신체관리의 목적이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규율담론을 기반으로 소녀들의 성은 위험하고 감추어져야 하는 대상이 된다. 육체성이 사라지고 난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소녀성이 수치심 즉 부끄러움의 감정이다. 나영균은 「현대소녀들의 미적 가치론」(1967.3)에서 "십대는 처녀의 수줍음과 유녀(幼女)의 솔직을 동시에 가진 모순의 시대이기도 하다. 또 그들은 아직 세상의 때에 물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성이 어느 정도 눈을 떠 있으니 그들은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103쪽)라고 말한다. 『여원』에서는 이 부끄러움이 처녀성의 증표인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가면의 여성성이라 할 수 있는 부끄러움을 가장하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펼치기도 한다.[19] 소녀들의 성이 처벌되고 사라지는 것과는 다른

---

18) 크리스테바는 주체도 대상도 아닌 아브젝시옹(abjection-비체 혹은 비자아)은 성스러운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버려진 오염된 신체, 찢겨지고 피흘리는 신체라고 정의하고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앞의 책, 116-117쪽.

19) 『여원』(1959.1 신년 증간호) <특집 처녀성 여섯 가지의 신비>인데 이 특집에서는 처녀성을 부끄러움과 연결 짓는 사고방식에 대한 논란이 다루어지고 있다. 장문경의 「처녀성을 잃으면 제3자도 알 수 있는가」에서는 서울만 해도 처녀의 몇 십 퍼센트가 이미 처녀성을 상실한 사이비 처녀라는 말이 항간에 돌고 있는데 처녀와 사이비 처녀의 구별은 불가능하다라며 처녀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현실을 비판한다. "그래도 차이가 있는 점을 끄집어낸다면 처녀의 몸가짐이나 말투가 보다 순진하고 아련한데 비해 남성을 아는 비처녀는 행동이나 남성과의 대화가 대담해지고 미미한 외관의 차이밖에 없으니 그것을 기준으로 처녀를 찾다가는 '처녀노이로제'에 걸리기가 일수일 것이다.(146쪽)"그 반면에 김기환의 「처녀성과 부끄러움의 심리」에서는 부끄러움의 심리는 자기의 약점이나 비밀의 폭로를 두려워하는 자기방어적인 감정이며 일정한 사태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적응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혼란된 적응의 모습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 부끄러움은 남성에게 대한 미라고 할까 매력이라고 할까 하는 것이 있다고 칭찬한다.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성에서 찢어지고 피흘리는 몸은 혐오의 대상이지 여성주체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그 때문에 여성의 이상적인 몸은 성인 여성의 몸이 아니라 육체성이 감추어진 순수한 소녀의 몸이 된다.

소녀의 몸은 수치심과 센티멘탈리즘을 감정적 특징으로 하는 부정적 특성 때문에 이중적인 곤경에 처하게 된다. 소녀성을 취하면 감정적 미숙성을 비판받고, 성인 여성성을 취하면 혐오스러운 몸을 갖게 된다. 여성이 소녀로도 성인여성으로도 끊임없이 자기 부정과 불안에 빠지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소녀성은 단지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의 특성이 아니라 성장이 지연되고 여성성의 한 요소로 남아 있게 된다는 점에서 소년성과 다른 특징을 지닌다. 성숙한 국민으로 성장하는 소년과 달리 훌륭한 모성으로 성장하는 여성의 경우 실제 신체는 혐오의 대상인 피흘리는 육체로 성장한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 때문에 여성의 성장은 지연되고 공포와 부정성이 내포되는 것이다.

5. 강철신체와 비체의 구성- 소년성과 소녀성의 구성

센티멘탈한 과잉감정과 사춘기의 취약한 신체 관리를 통해 구성해내는 소녀성은 수줍은 제복의 여학생이다. 피흘리는 신체, 출산하는 몸이라는 육체성을 지우고, 감정 역시도 제도화된 육체에 깃들 수 있는 수치심을 드러내는 발그레한 볼로 이미지화된다. 이러한 소녀를 구성하는 방식이 생활표준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담론들이다. 196, 70년대는 국가주도의 급속한 근대화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민만들기가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재구성되는 여성성 역시도 국민만들기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복의 소녀와 위대한 모성인 신사임당으로 여성성이 제도화되는 한편으로 실제 여성의 육체는 피흘리고 찢어진 비체로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지워지게 된다. 이러한 제

도화된 여성성은 이 시기 잡지를 통해 다양한 규율담론으로 구성되며, 생활표준화를 통해 전파된다. 이 시기 여성성은 국민만들기 주체인 남성성의 주변부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성숙한 소녀에서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부정하고 가부장적 모성으로 비약해야 하는 여성성의 불안, 즉 늘 소녀성에 남아 있으려 하는 퇴행심리가 생기게 되는 원인도 여성의 실제 신체에 대한 혐오와 부정이 과학적 담론으로 계몽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국민만들기의 시기에 소녀성은 소년성과 함께 두드러진 대립적 특징을 보이게 된다. 196, 70년대에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지금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던 만화영화 <우주소년 아톰>이 잊혀지지 않는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동네 아이들은 만화방에 삼삼오오 모여 아톰을 보았고, 그 시간에는 남의 집 초인종누르기 놀이도 모두 스톱, 골목길에는 정적이 흘렀다. 아톰이 실제로 있다, 아니다로 내기를 하기도 하고 남자아이들은 아톰의 동작을 따라하며 동네 담벼락에서 뛰어내렸다. 그 이후에는 <로봇태권 V>, <마징가Z> 등 일본의 거대로봇의 원조격 만화 <철인28호>의 변주격 로봇만화들이 소년들의 꿈을 사로잡았다. 이 시기 어린시절을 보낸 사람들이라면 <새소년>, <소년중앙>, <어깨동무> 등의 잡지들과 TV와 극장에서 접하기 시작한 로봇만화의 세계에 매료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학에 대한 급속한 관심, 우주개발 전쟁과 핵개발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이 시기 잡지들의 지배적 담론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과학주의 담론의 부상과 로봇만화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소년들의 로봇에 대한 열망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소년들의 로봇열망은 강철신체에 대한 선망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존재적인 취약성에 대한 부정과 혐오로 남성성을 형성할 때 모든 감정과 신체의 동물성을 배제한 강철신체, 로봇은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궁극의 완벽함이라 할 수 있다. 과학주의 담론이 생산하는 이상적 남성성은 이러한 존재적인 취약성이 부정된 강철신체와 완벽한 이성, 논리성, 합리성으로 그려진다. 소년들의 로봇열망은 이러한 완벽한 신체가 될

수 없다는 절망, 남성성의 근본적인 허약함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사 너스바움은 원초적 혐오가 동물적 취약성과 수치심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남성이 강철과 금속의 이미지에 강박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는 인간의 유한성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숨겨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수치심은 완전한 신체, 완전한 통제력을 지니려는 원초적 욕구에 기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폄하와 어떤 형태의 공격성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를 들어 1차 대전 후 독일남성이 겪은 수치심은 강철같은 남성상을 요구하게 되었고 인간의 감정과 신체를 지닌 여성은 수치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공산주의자, 유대인, 빈민 등도 혐오스러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들은 사회에 위협이 되는 집단으로 증오스러운 여성성이 확장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한다.[20]

이처럼 남성의 강철신체에 대한 욕망은 수치심을 벗어나려는 완벽함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에, 식민지 경험이나 전쟁의 패배 등 남성성의 훼손에 대한 수치심이 이를 더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2차 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일본애니메이션의 거대로봇 상징들은 훼손된 남성성이 꿈꾸는 강철신체에 대한 열망의 한 예로 볼 수 있다.[21] 이러한 강철신체에 대한

---

20) 마사 너스바움은『혐오와 수치심』에서 혐오는 동물적 취약성과 수치심의 경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남성이 강철과 금속의 이미지에 강박적일 정도로 집착을 보이는 것은 인간의 유한성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숨겨야 하는 것이며, 나아가 초월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사 너스바움,『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205쪽, 378-384쪽.

21) 김준양은 <우주소년 아톰>을 분석하면서 전쟁의 패배와 상처받은 일본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아톰은 새로운 인공의 국민적 신체(national body)로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영웅 서사를 통해 과거와 단절할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계신체는 전쟁으로 처참해진 일본 남성성이 열망하는 유기체의 불완전함과 단절하는 완벽함을 상징하는 것이었다고 분석하였다. 김준양,『이미지의 제국』, 한나래, 2006, 298쪽. 일본 애니메이션을 통해 소년기 기계신체에 대한 선망을 키우게 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해 보인다. 이후의 연구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는 탐구해나갈 예정이다.

선망 반대편에 비체와 대상으로 이분화된 찢겨진 여성성이 존재한다. 순결한 소녀와 피흘리는 찢겨진 몸으로 이분화된 여성성이 과학적이라는 설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이 196, 70년대 여성잡지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과학주의 담론의 신체화라고 명명한 이유도 그 때문이다. 소년들은 슬퍼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수치스럽다고 배운다. 소년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성격의 모든 측면(감정 특히 욕구, 슬픔, 동정심)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것이다. 여성을 향한 혐오는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향한 적대감이라[22] 볼 수 있으며, 그 때문에 강철신체의 남성성을 헤게모니 남성성으로 삼았을 때 여성성에 대한 혐오와 수치는 더욱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시기가 구성한 소년성과 소녀성의 특성은 절대적인 근대화 주체와 그러한 주체가 버려야 할 것들로 대비되어 젠더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시기임을 보여준다.

6. 마무리말

박정희정부의 국가주도 근대화프로젝트는 이러한 강철신체를 이상으로 삼는 소년성과 과잉감정과 불완전한 신체로 구성된 소녀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소녀의 신체가 수치심으로 구성되고 정서적 불안이 감정 과잉의 특성으로 구성되는 과정을 잡지 『여학생』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사춘기라는 과학담론은 이러한 소녀성을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자연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과학적이라는 설명은 경직된 젠더주체를 스스로 수행하고 내적 규율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이유가 되었던 것이다. 감정과 신체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이 이상적 소녀이고 '수줍은 제복의 소녀이다. 이 시기의 소년성이 구성되는 과정도 좀더 구체적으로 연구해나갈 예정

22) 마사 너스바움, 앞의 책, 367쪽.

인데, 로봇선망을 보여주는 텍스트(로봇만화, 과학소설 등)들과 소녀들의 순정물(순정만화, 순정소설 등) 텍스트를 비교해보면 이 연구의 주장이 좀더 선명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흔히 청소년은 남성/여성으로 성장하기 이전 단계로 젠더 정치학의 작동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로 이해되곤 한다. 그러나 박정희프로젝트의 국민만들기에서 '수줍은 제복의 소녀'는 강철신체로 상징되는 남성노동력을 구성해내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판단된다. 남성국민주체가 혐오하고 버려야 하는 감정과잉, 오염된 신체 등 불완전성을 투사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새롭게 탄생한 소녀의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불완전하지만 잘 관리되고 규율되었을 때 소녀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그 사이에서 비체로 구성되는 피흘리는 여성의 육체는 과학담론과 의학담론으로 계몽되고 관리되고 버려지는 몸이 되는 것이다.

『여학생』은 1965년 재창간된 이후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간된 대표적인 여학생잡지이다. 1차 작업으로 살펴본 1960년대의 특징은 여성으로 성장하는 전단계로서 사춘기 소녀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과학적, 의학적 설명으로 이 개념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과정을 보여준다. 특히 일상의 과학화, 신체의 과학적 설명, 남녀의 특성에 대한 의학적 설명, 합리적 에티켓, 행동윤리 등으로 과학적 담론을 생활의 표준으로 전파하는 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후 작업으로 이 잡지가 제시하는 소녀상을 추적해보면, 각 시기마다 지배담론이 육체로 재해석되고 위치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1. 자료

『뿌리깊은나무』, 한국브리태니커, 1976.3~1980.8.

『사상계』, 사상계사, 1953.4~1970.5.

『여원』, 학원사, 1955.10~1970.4.

『여학생』, 여학생사, 1965.12월~1990.(현재 국립도서관에는 1988년 12월호(24권 12호)까지만 남아 있다.)

2. 단행본

김준양, 『이미지의 제국』, 한나래, 2006, 298쪽.

마사 너스바움, 『혐오와 수치심』, 조계원 역, 민음사, 2015, 205쪽, 367, 378-384쪽.

줄리아 크리스테바, 『공포의 권력』, 서민원 역, 동문선, 116-117쪽.

Kim, Elaine H., Choi, Chungmoo, *Dangerous Women*, London: Routledge, 1998, pp.26-27.

3. 논문

권인숙, 「1950~1970년대 청소년의 남성성 형성과 국민 만들기의 성별화 과정」, 『한민족운동사연구』 56, 2008, 281-321쪽.

김양선, 「1960년대 여성의 문학 · 교양 형성의 세대적 특성: 잡지 <여학생>의 문학란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6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7-49쪽.

김윤경, 「해방 후 여학생 연구」, 『비평문학』 47, 한국비평문학회, 2013, 37-62쪽.

나윤경, 「60~70년대 개발국가 시대의 학생잡지를 통해서 본 10대 여학생 주체형성과 관련한 담론분석」,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6,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8, 323-374쪽.

이선옥, 「'여류현상문예'와 주부담론의 균열」, 『여원 연구-여성·교양·매체』, 2008, 국학자료원, 305-338쪽.

이선옥, 「1960년대 과학주의와 젠더의 재구성」, 『여성문학연구』 39,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261-302쪽.

임지연, 「1960년대 초반 잡지에 나타난 여성/청춘 표상: 사상계와 여원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6, 한국여성문학학회, 2006, 211-240쪽.

장수경, 「1960년대 학원에 나타난 근대화와 청소년의 위계화 양상」, 『Comparative Korean Studies』 17-3, 국제비교한국학회, 2009, 429-458쪽.

정미지, 「1960년대 문학소녀 표상과 독서양상 연구」, 성균관대학교석사논문, 2011, 1-140쪽.

최경희, 「1960-70년대 여성지를 통해본 근대화의 젠더양상연구」, 『한국문학이론과비평』 40,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6, 313-331쪽.

허윤, 「1960년대 불량소녀의 지형학」, 『대중서사연구』 20-2, 대중서사학회, 2014, 103-130쪽.

허윤,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과 여성노동자의 주체화 - 잡지 『여학생』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2, 현대문학연구학회, 2014, 67-98쪽.

Abstract

Research on the somatization of scientific discourse in the 1960s : Girls and puberty in the magazine “yeohagsaeng”

Lee, Sun-Ok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the girl in the magazine “yeohagsaeng,” and it aim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how the modernization project led by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is linked to the making of the people. Then, it explores how scientism reframes gender, as there is a link between scientism and the reconstruction of gender. Most studies from the 1960s centered on the Cold War and militarism, the Saemaul Undong (the campaign to boost productivity by reforming the whole country), and the productivity discourse. While analyzing intensively the productivity discourse of Park Chunghee’s project, which was to follow the speedy modernization, the study extracts scientism from the values that it uses as essential ideology. The characteristics of the 1960s in the magazine “yeohagsaeng,” which were examined, appeared along with the concept of the puberty girl as a woman who grew up as a woman. There were many scientific and medical discourses on the puberty girl. The Ideal Girl Award, which consists of the overemphasizing and vulnerable physical management of puberty, is a shy schoolgirl. It is institutionalized as an ideal girl to recognize uneasy feelings and body scientifically and to manage them reasonably well. Often, adolescence is understood as a time

when gender politics is unclear at a stage prior to becomingamale/female . However, in the making of the people in the Park Chunghee project, it is judged that the “girl with a shy uniform” is an essential process for constructing the male labor force symbolized by the steel body. The concept of a girl can be seen as a way of projecting and managing human vulnerabilities, such as emotional overgrowth and a contaminated body that the male labor command despises and abandons. Because it is a scientific explanation, it is considered reasonable to divide emotion and reason, weak body and steel body. However, it is not a science, but a scientism that uses science as a magical helper for the making of the people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Key words : Park Chunghee Modernization Project-1960s, magazine, “yeohagsaeng,” scientism, puberty, gender

■ 본 논문은 2017년 11월 26일에 접수되어 2017년 11월 29일부터 12월 22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17년 12월 2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